

賃借農의 地域性에 관한 연구*

-사례지역의 비교분석-

徐 贊 基**

본연구는 경북의 사례지역 비교분석을 통하여 임차농의 지역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대구시의 농업 공간체계(대략 경상북도와 일치)를 대상으로 중심도시에서의 거리와 영농형태에 따라 5개 郡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된 후 각 군을 대표하는 마을(里洞)을 택하여 총 77개 임차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무작위로 행하였다.

연구지역의 범위가 제한적이면서도 분석의 결과는 임차농의 지역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지역성은 특정 공간체계가 형성하는 공간질서와 이 공간질서내에서 특정 장소가 발현하는 국지성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 경우의 공간질서는 주로 거리조락으로 나타나고 국지성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인구요인의 차이에서 발현된다.

한편 본 연구지역의 지역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본 기준은 지역농업의 상업화 정도인데 그것은 한국의 임차농이 봉건적 소작농에서 자본주의적 借地農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임차농의 현저한 지역성은 기존의 확실적인 임차농 설명논리의 현실 괴리문제를 제기하였다.

主要語 : 임차농, 생계임차농(궁핍임차농), 상업적 임차농, 농가생애주기(F-cycle), 거리조락, 그린효과

1. 서 언

1) 연구 목적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적 경제발전과 더불어 한국의 농업이 구조적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상업화, 기계화, 겸업화와 더불어 농업의 賃借化가 급속히 진척되었다. 1975년 이전에는 農地流動에서 賃借地가 미치는 영향이 3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75년 이후는 무려 60%에 이를 뿐만 아니라(이정환 외, 1984, 69) 규모확대 농가의 80% 이상이 임대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이동호 외, 1990, 1~22). 이 때문에 임

차농업에 관한 연구는 국내적으로는 전환기 한국 농업 연구의 필수적인 한 측면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특징있는 농업 생산체제로 주목할 만한 대상이다. 한국의 임차농업은 넓은 의미에서, 외부소유 생산수단(토지)과 자가 노동력이 결합된 특정의 생산기술적 조직으로서 小商品生産(petty commodity production)이 특색이나 Africa나 America의 자본주의적 계약농업과는 다른 것은 물론 전통 小作農과도 다르다. 이 때문에 1980년대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임차농업의 연구가 활기를 띄우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 연구가 촉진되고 있다.

* 이 연구는 1996년도 학술진흥재단 학술 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그러나 지금까지의 임차농업 연구가 제도적 경제경영적 측면에 치우치고 그것조차도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相互構成 (mutual constitutivity)으로서의 농업현상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 현상인 동시에 공간적 현상이기도 하므로 농업과 공간간에는 社會·空間辨證法(socio-spatial dialectic)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임차농업에 대한 공간적 접근은 임차농업 이해를 위한 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공백상태에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¹⁾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본 연구의 선행 연구로서 전국적 시야에서 임차농업의 공간구조와 그 특색 및 공간구조의 형성 요인을 밝히고 空間分化를 질서지우는 논리 발견을 시도한 바 있다(주 1 참조). 이 연구에서 한국의 임차농업공간의 성격을 봉건적 小作空間과 자본제적 借地農空間의 중간형태로서의 小農의賃借空間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공간의 구조도 帶狀 구조에서 圈域 구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구조형태를 시현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 임차농가의 유형구성으로 볼 때 자본주의적 임차공간의 분화과정은 프롤레타리아화과정이 아니라 산업화과정을 취하고 있으며 농가계층구조로 본 자본주의적 공간분화질서 역시 맑시즘적 논리보다는 신고전경제학적 논리가 더 설명력이 높은 사실을 지적하는 동시에, 小農이론의 의의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접근은 미시적인 접근 즉 개별 지역연구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질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지금까지 임차농업의 지역연구를 체계적으로 시도한 경우는 전술한 우종현의 연구가 유일한데 이 연구는 임차농의 지역성에 관한 실태파악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나 사실기술에 치우쳐 공간설명이나 의미발견, 성격규정 등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 본 연구는 대구시의 農業空間體系에 속하는 경북의 몇몇 郡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임차농이 ① 지역적으로 어떤 차이를 시현하고 있으며, 그 (공간적) 요인은 무엇인가? 또 ②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 임차농의 의미와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며, ③ 이러한 지

역차를 발생시키는 공간질서나 공간논리가 존재하는가?를 구명함으로써 한국 임차농업의 지역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賃借農이란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賃借農家의 뜻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또 여기에서 임차농가는 自借作農과 純賃借農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他耕農家를 의미한다. 이러한 임차농의 정의하에서 본연구는 몇 개의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의 임차농가의 성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임차농의 지역성을 구명하기로 하였다. 연구지역은 경상북도에 한정하기로 하였는데 그것은 경상북도가 비교적 다양한 농업의 지역 유형을 갖추고 있는 동시에 이들이 대구시를 중심으로 하나의 農業空間體系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연구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필자와 조사요원들이 비교적 잘 숙지하고 있는 연고지역이어서 자료조사와 고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산업화사회에 있어서는 특정 공간체계를 구성하는 각 지역의 성격은 그 공간체계의 핵(중심도시)에서의 거리나 상대적 위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연구지역을 대구시를 중심으로 근교지대(0~30km), 중간지대(30~100km), 원격지대(100km 이상)의 3지대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근교농업이 발달한 특수농업지역이고 후2자는 일반농업지역이다. 각 농업지대는 도시 영농형태나 기타 지역성의 차이에 따라 근교농업지역은 내측의 高靈郡과 외측의 星州郡으로, 중간지대는 답작지역인 義城郡과 전작지역인 迎日郡으로, 전작지역만으로 된 원격지대는 奉化郡으로, 세분하여 총 5개 郡을 대상지역으로하였다. 이들 郡들은 <표 1>에서와 같이 위치(거리)나 전답의 비율, 임차농가율, 기타 경영적 특성이 각 농업지대를 대표하는 지역들이며, 특히 영일군을 제외한 각 군은 임차농가율이 전국 평균치(1990년 현재 42.7%)와 같거나 상회하는 지역들이다.

또 실제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위하여 각 군별로,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아 <표 1>에서와 같은 대표적인 里洞을 선정하고 이들 마을에서의 표본

조사대상 임차농가는 무작위로 선정하였다.²⁾

설문조사방법은 임차농의 경영주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경영주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사원이 경영주의 반응을 대신 기입하여 총 77개 임차농가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³⁾ 조사기간은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1996년 10월에서 1997년 5월 사이에 지역별로 수시로 행하였다.⁴⁾ <표 2>에서 <표 21>까지 수록된 자료는 모두 현지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지면적 1.2ha(1995년)의 약 1.3배에 이르고 전국의 그것(약 1.3ha)보다도 약간 더 크다. 그러나 自作農에 비하여 賃借料 지불의 부담을 감안할 때 실질적 경영규모는 일반농가의 평균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차농이 부족한 자가경지를 보충하기 위하여 빌린 임차지를 합쳐도 그 경영규모가 일반농가의 평균규모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임차농의 주목적이 상업적이 아니라 생계적이며 따라서 임차농은 궁핍을 면키 위한 窮乏賃借農이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 生計賃借農의 성격

표 1. 사례지역 개관

구 분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내측근교 농업지대	외측근교 농업지대	답작지대	전작지대	전작지대
사례지역	고령군	성주군	의성군	영일군	봉화군
대구시청에서의 직선거리(km)	18	24	59~63	62	123
논의비율(1990)	80	77	82	24	29
임차농가수(1990)	51.1	47.6	42.7	38.4	47.3
조사마을	다산면 노곡동	용암면 상언1동	안계면 양곡리 및 노연리	죽장면 상사리	춘양면 서동리
총가구수	135	103	128	75	108
인구수	405	288	404	136	213
농가수	120	88	104	52	79
임차농가수	65	50	67	21	30
조사임차농가수	10	13	17	19	18
경지면적(ha)	167	100	190	130	170

주 : 농수산부(1990).

자료 : 조사마을의 자료는 현지조사 결과임.

2. 賃借農의 구조

1) 경영규모

일반적으로 농가 성격규명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는 경영규모의 크기와 그 구성관계이다. 본 연구 지역 임차농은 자가소유경지와 임차지를 합쳐 경영규모가 평균 1.5ha로서 경북의 농가당 평균 경

이 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임차농의 평균 경영규모는 <표 2>에서 고령군을 예외로 하면 중심에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규모의 距離凋落을 인정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농업공간에서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경영이 조방적이어서 적정 경영규모 확보를 위해서는 경영면적이 증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본 연구서는 이러한 일반 공간질서와는 상반되는 질서를

표 2. 경영규모별 임차농의 구성

경영규모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계 (평균)
	고령	성주	의성	영일	봉화	
0~1ha	30.0	23.0	29.3	26.3	27.8	27.2
1~2ha	40.0	30.8	23.6	42.1	61.0	40.3
2~3ha	30.0	30.8	29.4	21.0	11.2	23.4
3ha 이상	.	15.4	17.7	10.6	.	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평)	4,510	5,208	5,103	4,583	3,973	4,651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임차농업의 상업화도가 중심에서의 거리에 따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근교지역일수록 상업화도가 높으므로 경쟁력있는 경영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농업지역보다는 규모의 경제 원리에 더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심도시와 가정 근거리에 위치한 고령군이 이러한 공간질서에서 이탈되고 있는 것은 Sinclair류의 近郊制約(urban fringe restriction)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이 지역의 도시화로 인한 경지부족이 농지가격을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현실지가가 收益地價를 상회케하므로써 임차농의 規模化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임차농 경영규모의 성격은 경영규모별 농가 구성을 통하여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편의상 경영규모 1ha 미만의 임차농을 임차영세농, 1~2ha의 농가를 임차소농, 2~3ha의 농가를 임차중농, 3ha 이상의 임차농을 임차대농으로 규정한 경우 전체적으로 임차소농의 비중이 40%로 가장 우세하고 여기에 임차영세농을 합치면 임차농의 2/3가 영세소농에 속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들 임차영세소농들은 대표적인 생계임차농이나 궁핍임차농들인데 비하여 전체의 1/3을 점하는 임차중·대농들은 소위 小商品生産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한 상업적 또는 준상업적 임차농이다. 따라서 경영규모가 상업화의 지표라는 전체하에서 본 본연구지역의 생계임차농과 상업적 임차농의 구성비는 2:1이 된다.

이 관계를 지역적으로 보면 의성군과 성주군이 상대적으로 중대농의 비중이 커서 상업적 임차농

입지역의 성격이 우세한데 대하여 봉화군은 영세 소농중심의 생계임차농입지역으로, 영일군은 소농 중심의 복합적 임차농입지역, 고령은 대농이 없고 영세·소·중농이 조화를 이룬 임차농입지역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끝으로 농가경지의 筆地수는 圃場의 분산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과 성격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농업경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 3>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임차농가당 평균필지수는 6필지이고, 그중 자가 경지보다 임차지의 필지수가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산지가 많은 중간지대와 원격지역을 포함하는 일반농업지역의 필지수가 많은 것은 이 지역이 지형적 영향으로 소규모 경지가 분산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지수의 지역별 분포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실은 필지수의 距離遞增경향이다. 다만 영일군이 예외적인데 中山間지역인 이지역의 필지수가 적은 것은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아무튼 경지 분산도의 공간질서는 노동집약도의 공간질서와 관련하여 산업화시대의 농업경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經營耕地的 구성

(1) 소유지와 임차지의 관계

<표 4>는 임차농의 경영주가 처음 경영주가 될 당시의 자가소유경지와 임차지의 규모를 현재의 그것들과 대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당시와 현

표 3. 임차농 경영지의 필지수

구 분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계 (평균)
	고령	성주	의성	영일	봉화	
자가경지	1.6	1.9	3.8	2.2	7.8	3.4
임차지	1.6	2.1	2.6	1.2	4.9	2.4
계	3.2	4.0	6.0	3.4	12.7	5.8

재간에 소유지의 규모변동은 거의 없는데 대하여 임차지는 약 1.2배 증가하고 있어 規模化는 임차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나 현재나 소유지 규모가 임차지 규모보다 많아 자작을 주로하고 부족한 농지는 임차에 의하여 보충하는 형태 즉 “主自補賃”형을 취하고 있다. 이것을 지역별로 보면 고령, 의성, 영일의 3군은 시종 主自補賃의 형태를 시현하고 있는데 대하여 성주군은 “主賃補自”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 대조적이다. 또 봉화군의 경우 당시에는 “主賃補自”형이었으나 현재는 “主自補賃”형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영형태는 임대지 공급, 임차농의 노동력이나 농기계의 사정, 수익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主自補賃형이 타월한 것은 임차농업이 생계보충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대하여 主賃補自형은 수익성이 큰 상업적 임차농의 형태이고 봉화군의 형태변동은 임대지공급확대와 노동력부족의 두 요인이 결합된 것이다.

또 <표 4>에서 경영주가 된 당시와 현재에 있어서 소유지와 임차지의 변동관계를 유형화하면 (A)

소유지와 임차지가 다 같이 증가한 경우로서 自作·賃借의 복합적 前進지역(自·借作前進型), (B) 소유지는 증가하였으나 임차지는 감소한 경우로서 自作의 前進과 賃借의 後退지역(自進賃退型), (C) 소유지는 감소하고 임차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自作의 後退와 賃借의 前進지역(自退賃進型)의 3유형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自·借作前進型에는 의성과 성주군이 해당되는데 규모의 경계를 노력적극적 규모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성장지역으로서 영농기계화가 중요한 계기이다. 自進賃退型에는 봉화군이 속하는데 산간전작지대로서 규모가 영세하던 이 지역이 이농에 따른 값싼 농지의 공급량이 확대되면서 농지매입이 늘어났으나 현저한 이농이 노동력부족을 초래하여 임대지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임차지의 규모확대를 제약한 것은 물론 오히려 임차지 감소를 초래하였다. 自退賃進型은 고령군과 영일군에서 볼 수 있는데, 고령군의 경우 대도시 근교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지 매매나 농지축소 등으로 인한 자가경지의 축소와 부채지주층대에 따른 임차지 증가의 결과이고 영일군의 경

표 4. 임차농의 소유지와 임차지의 규모변화

(단위 : 평)

구 분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계 (평균)
		고령	성주	의성	영일	봉화	
소유지	당시규모	2,808	2,908	2,314	3,203	2,055	2,374
	현재규모	2,467	3,229	3,519	2,540	2,376	2,360
임차지	당시규모	1,520	3,111	1,275	938	2,300	1,900
	현재규모	2,290	3,469	2,229	1,707	1,925	2,246

주 : 당시규모란 경영주가 된 당시의 규모를 말함.

賃借農의 地域性에 관한 연구

우는 中山間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1970년대 이전에 자가농지의 상당부분을 매각, 상실한 다수의 貧農이 1970년대 이후 활발한 이농에 따른 임대지 공급증가로 유리한 조건을 지닌 임대지의 선택, 확대에 의하여 경영규모를 보충한 결과이다. 이들 3유형중 自·借作前進型은 소유지와 임대지간에 相乘관계가, 自進賃退型과 自退賃進型은 補足관계가 인정된다. 또 영일군과 봉화군은 산간지대 공통의 특색으로서 대폭적 농가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에 준하는 영농규모 확대가 일어나지 않고 규모정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술한 노동력 부족의에도 열악한 경지조건이 기계화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간지역의 경우 “농가호수의 감소=영농규모 확대”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정명채 외, 1996d, 32).

한편 임대농의 소유지 규모와 임대지 규모와의 관계는 농업경제학의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연구지역의 경우 <표 5>에서 “소유지 규모가 영세한 농가는 임대지 규모도 영세한 경우가 많다.” 1ha미만의 자가경지 소유농가로서 1ha 미만의 임대지를 가진 농가율이 전체의 45%에 이르고 있는 것이 그것으로서 노동력부족이나 기계화의 제약이 그 주요인이다. 그러나 비록 임대농의 65%가 1ha 미만의 자가경지를 소유한 영세농가이나 소유경지규모로 본 영세농의 30%는 1ha 이상의 임대지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 경영규모상으로는 이들 농가는 영세농이 아니다. 더욱이 2ha 이상의 임대지를 보유한 상업적 임대농도 전체의 4%, 영세농의 약 6%에 이르고 있다. 오히려 소유지 2~3ha의 중농에서 2ha 이상의 임대지 보유농가가 없는 것이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것처럼 “소유지 규모가 영세한 농가는 임대지 규모도 영세한 경우가 많다.”라는 확률적 논리는 성립되나 비례적 상관관계를 함축한 “소유지 규모가 영세한 농가일수록 임대지 규모도 영세하다.”라는 엄격한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이 관계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지역적으로 보기 위하여 지역별 규모별로 임대지 집중도를 산출하면 <표 6>과 같이 근소한 차이기는 하나 대체로 임대지는 소·중농보다 영세농에 집중하는 경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성주군만은 예외적으로 영세농에서 중농으로 감에따라 임대지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성주군을 예외로하면 “기계화가 대농의 地代부담력을 향상시켜 임대지(임대지)는 대농에 집중된다”(이정환, 1984, 122)라는 종래의 논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것은 성주군과 같이 자본주의적 농업이 진척된 지역에서 적용되는 논리일 뿐이다.

끝으로 임대지 규모가 최대가 될 때의 자가소유 경지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즉 임대농의 자가경지 限界規模를 보면 고령군 : 3,000평, 성주군·봉화군 : 4,000평, 영일군 : 5,000평, 의성군 : 6,000평으로서 1~2ha 사이의 소농층에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지역의 대규모 임대농의 주체는 소농층이다. 임대농의 자가경지 한계규모의 소농층집중은 중농층(본연구 지역에서는 자기경지 규모로 본 대농층은 없음)에서의 임대지 규모의 급속한 감소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고용노동력의 가족노동력으로의 대체가 일어난 1970년대 이후 전국적 현상인 농가의 中農化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즉 대농이나 중농의 경우 가족노동력의 한계로 임대지의 확대가 어려운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농은 임대지의 확대를 통하여 중농화하므로써

표 5. 소유지와 임대지 규모관계로 본 농가구조

임차지 소유지	0~1ha	1~2ha	2~3ha	3ha 이상	계
0~1ha	45.4	15.6	2.6	1.3	64.9
1~2ha	20.8	5.2	1.3	.	27.3
2~3ha	6.5	1.3	.	.	7.8
계	72.7	22.1	3.9	1.3	100.0

표 6. 자가경지규모별 임차지 집중도

자가경지규모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계 (평균)
	고령	성주	의성	영일	봉화	
0~1ha	1.1	0.9	1.0	1.1	1.1	1.0
1~2ha	0.9	1.4	0.7	0.9	0.8	0.9
2~3ha	.	2.8	1.3	0.8	.	0.9

주 : 임차지 집중도는 지역의 총임차지에서 점하는 규모별 임차지비율/임차농가율.

표 7. 순임차농가율과 규모별 구성

구 분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계 (평균)	
	고령	성주	의성	영일	봉화		
순임차농가율(%)	10.0	40.2	17.6	10.5	22.2	20.8	
평균임차지면적(평)	4,000	3,783	1,033	5,850	2,025	3,414	
규모별 농가구성	0~1ha	.	33.3	100.0	50.0	75.0	56.3
	1~2ha	100.0	50.0	.	.	25.0	31.3
	2~3ha	.	16.7	.	50.0	.	1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규모의 경계를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임차지의 규모화는 소농의 중농화 수단이다.

(2) 純賃借農

자가소유 경지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전적으로 他耕에만 의존하는 純賃借農은 임차농의 지역성을 밝히는 효과적인 지표이다. <표 7>에서 전체적으로 순임차농은 임차농가의 약 20%를 점하여 비교적 큰 비중을 시현하고 있는데, 특히 성주군의 순임차농의 비율이 월등한 것이 특색이다. 이것은 그만큼 이 지역의 임차농이 상업적 성격이 강한 것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하여 그 경영주체의 상당부분은 외래농민이 차지하여 토착성이 약하다.

이에 대하여 유사한 근교농업지역인 고령군의 경우 순임차농의 비율이 상당히 낮고 토착성이 강한 것이 대조적이다. 또 일반농업지역에서는 의성군의 경우 50대 이상의 노령층에 의한 생계적 순임차농이 많은데 대하여 영일군은 30~40대의 젊은 층에 의한 상업적 목적의 성격이 강하고, 봉화군은 연령층 구성이 의성과 영일의 복합형이다.

한편 순임차농의 평균 임차규모 역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 근교지역의 경우 두 지역 모두 임차농의 평균 임차지 규모(2,246평)보다 순임차농의 그것이 상당히 큰 것이 특색인데 그것은 이들의 임차목적이 상업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의성군의 경우 임차규모가 1,000평 정도로 가장 작은 것이 특색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노령층의 노동력 제약이 노동투입을 많이 요하는 미작의 임차규모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영일군은 평균 6,000평에 가까운 대규모의 순임차농인 것이 특색이나 실제로는 3ha 이상의 상업적 임차대농과 1ha 이하의 영세임차농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일반농업지역중에서는 순임차농의 비율이 가장 높은 봉화군은 토지생산성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임차규모가 영세하여 궁핍임차농의 비율이 높다.

3) 경영의 賃借依存度

(1) 임차지의 규모별 농가구조

임차지의 규모는 임차농의 규모화와 관련된 성

표 8. 임차지 규모별 농가구조

자가경지규모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계 (평균)
	고령	성주	의성	영일	봉화	
0~1ha	70.0	46.2	70.6	94.7	72.2	72.7
1~2ha	30.0	38.5	23.5	.	27.8	22.1
2~3ha	.	15.3	5.9	5.3	.	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격을 규정하는 기본지표이다. <표 8>에서 전지역이 "임차지규모가 영세할수록 임차농가율이 높다." 더구나 1ha 미만의 임차지를 보유한 농가가 평균 73%에 이르고 있어 임차 규모의 영세성이 현저히 들어나고 있으며 특히 영일군이 그러하다. 이에 대하여 성주군은 규모별 구조가 전체의 경향을 따르면서도 1ha 미만 임차 농가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색으로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수임차지역이다.

정기환은 2ha 이상의 임차농을 상업적 임차농으로, 그 이하의 임차농을 생계적 임차농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정기환, 1993, 75)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본 연구지역에서의 상업적 임차농의 비율은 평균 5.2%로 정기환의 전국적 조사결과(1990년)의 4.7%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임차화가 진척되고 있는 실정에서 조사연도의 시차를 고려하면 비슷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2ha 이상의 대규모 임차농가율을 지역별로 보면 성주군이 15%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상업적 임차지역의 특성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1ha 이상의 임차농가율이 과반을 넘고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러나 유사한 근교농업지역이면서도 고령군에는 경지계약으로 대규모 임차농이 없는 것이 대조적이며 일반농업지역에서는 봉화군이 그러하다.

또 답작지역(의성군)의 대규모 임차농가율이 5.9%로 전국 평균 0.3%(정기환, 1993, 75)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시차를 고려하여도, 매우 특징적인데 이것은 평야지대의 상업적 대규모 借地經營의 대표적 예이다(김성호 외, 1993, 147).

(2) 借地率

순임차농을 제외한 임차농의 借地率은 표 9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평균 82%로 성주군을 제외하면 자가경지규모를 초과하지 않고 있어 補充的 賃借의 성격이 짙다. 이러한 보충적 임차는 경영상의 안정성은 있으나 생계적 임차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

지역별로는 성주군과 고령군으로된 근교농업지역이 상업적 임차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높은 차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러한 높은 임차의존도는 도시근교의 농지임차는 농업생산이 산업모델에 통합되는 일반적 과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Bowler, et al., 1992, 77~78). 그러나 일반농업지역중에서 답작지역인 의성군이 전작지역인 봉화군이나 영일군보다 차지율이 낮아 종래의 연구와는 다른 것이 주목된다. 즉 김정호 등(1993, 137)은 수도작지대의 차지율이 전작지대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高米價 정책으로 미작이 일반 전작보다 수익성이 높았던 과거의 경우이고 고소득 작목을 생산하는 전작지역의 수익성이 더 큰 현재의 경우는 본 연구의 결과처럼 전작지역의 차지율이 답작지역의 그것보다 높은 것이 당연하다.

한편 차지율 100% 이상으로 임차의존도가 높은 경우는 전체로서 평균 36%에 이르나 여기에 순임차농을 합치면 고도 임차의존의 비중은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고령군과 봉화군이 특히 높고 영일군이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 두 지역은 다같이 자가 소유 경지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들로서 보충적 임차와 관련이 있으며 특

표 9. 차지율

차지율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계 (평균)
	고령	성주	의성	영일	봉화	
0~50%	33.4	28.6	35.7	64.7	35.6	42.7
50~100%	11.1	28.5	28.6	23.5	14.4	21.3
100~150%	33.3	14.3	14.3	11.8	.	13.1
150~200%	11.1	14.3	7.1	.	21.6	9.8
200% 이상	11.1	14.3	14.3	.	28.4	1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차지율	92.8	107.4	63.3	67.2	81.0	82.2

주 : 차지율 = 임차지면적/자가소유경지면적 × 100

이런 경향은 자가경지의 규모가 실질적으로 가장 영세한 봉화군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차지율 200% 이상의 농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봉화군이라는 사실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영일군의 경우 임차농의 88%가 차지율 100% 이하로서 임차의존도가 가장 낮은 것은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中山間지대로서 기계화가 곤란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

(3) 차지율과 경영규모의 관계

최근 이농이나 탈농의 심화로 임대지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농지임대차 시장은 임대인 시장에서 임차인 시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일반 농업지역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임차인이 어느 정도의 경지를 빌려서 어느 수준의 경영규모를 이루

는가의 문제는 종전보다 임차인에 의하여 주도되므로 임차인은 적정 경영규모 확보에 보다 합리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임차의존도(차지율)와 경영규모의 관계에 대한 임차인의 반응 결과를 지역별로 보면 <표 10>과 같다. 그러나 <표 10-1>의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양자간에 어떤 뚜렷한 관계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다만 경영규모 1ha 이상의 농가에서는 임차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데 대하여 1ha 미만의 영세농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약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을 지역별로 보면 보다 확실한 경향을 얻을 수 있다. 고령군의 경우 <표 10-2>에서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임차의존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대농지향 임차의존도 감소형」 또는 「영세농지향 임차의존도 심화형」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표 10-1. 차지율과 경영규모의 관계로 본 농가율(총합)

경영규모(ha) \ 차지율(%)	0~1	1~2	2~3	3 이상	계 (평균)
0 ~ 50	25.0	50.0	41.2	49.9	42.6
50 ~ 100	33.3	19.2	17.6	16.7	21.3
100 ~ 150	16.7	11.5	11.8	16.7	13.1
150 ~ 200	.	7.8	17.6	16.7	9.9
200 이상	25.0	11.5	11.8	.	1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순임차농 제외

賃借農의 地域性에 관한 연구

표 10-2. 차지율과 경영규모의 관계로 본 농가율(고령군)

경영규모(ha) 차지율(%)	0~1	1~2	2~3	3 이상	계 (평균)
0 ~ 50	11.2	11.1	11.1	·	33.4
50 ~ 100	·	·	11.1	·	11.1
100 ~ 150	11.1	11.1	11.1	·	33.3
150 ~ 200	·	11.1	·	·	11.1
200 이상	11.1	·	·	·	11.1
계	33.4	33.3	33.3	·	100.0

주 : 순임차농 제외

표 10-3. 차지율과 경영규모의 관계로 본 농가율(성주군)

경영규모(ha) 차지율(%)	0~1	1~2	2~3	3 이상	계 (평균)
0 ~ 50	14.3	·	14.3	·	28.6
50 ~ 100	·	14.3	14.2	·	28.5
100 ~ 150	·	·	·	14.3	14.3
150 ~ 200	·	·	·	14.3	14.3
200 이상	·	·	14.3	·	14.3
계	14.3	14.3	42.9	28.6	100.0

주 : 순임차농 제외

표 10-4. 차지율과 경영규모의 관계로 본 농가율(의성군)

경영규모(ha) 차지율(%)	0~1	1~2	2~3	3 이상	계 (평균)
0 ~ 50	·	14.3	7.2	14.2	35.7
50 ~ 100	7.2	7.2	7.2	7.0	28.6
100 ~ 150	·	7.2	7.1	·	14.3
150 ~ 200	·	·	7.1	·	7.1
200 이상	7.2	·	7.1	·	14.3
계	14.4	28.7	35.7	21.2	100.0

주 : 순임차농 제외

표 10-5. 차지율과 경영규모의 관계로 본 농가율(영일군)

경영규모(ha) 차지율(%)	0~1	1~2	2~3	3 이상	계 (평균)
0 ~ 50	5.9	29.5	23.4	5.9	64.7
50 ~ 100	11.8	11.7	.	.	23.5
100 ~ 150	5.9	5.9	.	.	11.8
150 ~ 200
200 이상
계	23.6	47.1	23.4	5.9	100.0

주 : 순임차농 제외

표 10-6. 차지율과 경영규모의 관계로 본 농가율(봉화군)

경영규모(ha) 차지율(%)	0~1	1~2	2~3	3 이상	계 (평균)
0 ~ 50	.	35.6	.	.	35.6
50 ~ 100	7.2	7.2	.	.	14.4
100 ~ 150
150 ~ 200	.	7.2	14.4	.	21.6
200 이상	7.2	21.1	.	.	28.4
계	14.4	71.2	14.4	.	100.0

주 : 순임차농 제외

영일군도 高靈型에 속한다. 이에대하여 성주군은 <표 10-3>에서 「대농지향 임차의존도 심화형」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 星州型에서 경영규모와 임차의존도간의 관계가 가장 질서 있게 나타난다. 그것은 이 지역이 합리적 경영원리가 증시되는 상업적 농업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의성군의 경우는 2~3ha의 중농에서 임차의존도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여기에서 경영규모가 적어지거나 커짐에 따라 임차의존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대체로 인정할 수 있어 자가소유경지규모가 다양한 임차농이 다양한 차지율과 결합해서 中農化될려고 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그외에도 의성군은 영세농에서 소농을 거쳐 중농까지는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임차의존도가 심화되는 星州型을 취하다가 중농에서 다시 경영규모가 증대되면서 高靈型을 시현하고 있는 복합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봉화군의 경우 임차의 小農化경향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것외에는 그 분포가 불규칙적이다.

3. F-cycle 검증

농가 경영규모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에는 가족수, 경영주 연령, 노동력이나 기계화의 조건 등을 비롯한 농가 내부적 요인과 시장, 농산물 가격 등의 외부적 요인이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수와 경영주의 연령조건을 제외한 여타 내외적 요인은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농경제학에서는 주로 가족수와 경영주 연령과 농가 경영규모 변동과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한 중요한 개념으로서 農家生涯週期(Farmhousehold Life Cycle: F-cycle)가 있다.

F-cycle은 농가가 부양해야 될 가구원수의 변화

賃借農의 地域性에 관한 연구

에 대하여 경영규모가 대응적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양자간에 주기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Chayanov는 사회주의 혁명 이전 러시아 가족농의 경우 최초에는 부부 두 사람만이어서 경작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으나 그후 자녀들이 성장해서 농업노동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경영규모가 증대된다고 하므로써 가족수(특히 남성노동력의 수)와 경영규모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또 그는 농가의 가족수와 노동력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分家가 이루어질 경우 농가의 경영규모는 감소되고 분가된 농가는 전술한 과정을 다시 되풀이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Chayanov의 농가생애주기설을 한국에 적용한 경우로는 1990년 농가조사 결과를 이용한 金聖昊와 鄭起煥의 연구(1991)가 있다. 즉 새로운 농가로 창설되는 20대 이후 농가의 경영규모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44세에서 최대규모에 이르고 59세까지는 대체로 동일규모를 유지하다가 60세 이후는 급격한 규모감소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때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는 주로 농지의 임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임차지 면적은 경영주 연령이 30대에 도달하면서 크게 증가하여 가구원 규모가 가장 큰 44세에서 최대가 되고 60세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60세 이후 경영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임차지도 감소한다고 하였다(정기환, 1993, 49~62).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F-cycle이 존재하고 있는가? 또 만일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농가의 가족수 변화와 경영주 연령의 두 변수와 경영규모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1) 가족수와 경영규모의 변화관계

임차농가별로 현재의 가족수를 경영주가 처음으로 경영주가 되었을 당시의 가족수와 대비한 값(가족수변동계수)을 산출하고 마찬가지로 경영규모 변동계수도 산출하여 이들 두 변동계수를 좌표로 표시하여 相關圖를 그려 보았다. 그러나 이 상관도에서는 가족수 변동과 경영규모 변동간에 아무런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 결과는 농가의 가구원 규모와 경영규모간에 높은 정의 상관관계($r=0.93$)가 있다는 김성호·정기환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후자의 조사방법은 전농가를 대상으로 한 집계적 자료에서 가구원수별로 경영규모의 차이를 대비한 것이고 필자의 경우는 개개 임차 농가단위로 가구원수 변화와 경영규모 변화를 직접 대비한 것이어서 조사분석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분석방법의 차이를 감안해도 상당히 주목되는 결과가 된다. 다만 이러한 엄밀한 상관분석을 완화하여 <표 11>과 같이 유형분석을 시도해보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표 11. 가족수와 경영규모의 변동유형

변동유형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계 (평균)
	고령	성주	의성	영일	봉화	
+·+	20.0	23.0	18.8	15.8	17.6	18.6
+·-	10.0	.	6.3	.	11.8	5.3
-·+	10.0	15.4	62.3	63.1	23.5	38.7
-·-	10.0	7.7	6.3	10.5	.	6.7
0·+	20.0	7.7	6.3	5.3	41.2	16.0
0·-	.	7.7	.	.	5.9	2.7
0·0	30.0	38.5	.	5.3	.	1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1〉의 변동유형 표시는 편의상 부호로 표시하였는데 +는 증가, -는 감소, 0은 변동없음을 나타낸다. 또 유형을 구성하는 한 쌍의 부호중 첫째자리 부호는 가족수의 변동을, 둘째자리 부호는 경영규모의 변동을 나타낸다. 전체로서 7종의 변동유형을 식별할 수 있는데, 그중 +·+형, -·-형, 0·0형은 가족수의 변동과 경영규모의 변동이 동일한 방향으로 일어난 경우로서 F-cycle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다. 이에 대하여 +·-형, -·+형은 가족수 변동과 경영규모 변동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어 反F-cycle 반응이다. 또 0·+형이나 0·-형은 F-cycle과는 무관한 변동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수로 본 F-cycle에 대한 임차농가의 긍정적 반응율은 37.3%이고 부정적 반응은 44.0%, 무관한 변동은 18.7%로 F-cycle 개념은 일부농가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형과 -·-형을 합친 적극적인 F-cycle 반응은 약 25%에 불과한데 대하여 -·+형, 즉 가족수는 감소하였으면서도 경영규모는 증가한 反F-cycle 유형(38%)은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지역의 임차농의 대부분은 이미 산업사회의 농업생산체제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족수와 관계없이 적정규모 확보를 위한 규모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가족수로 본 F-cycle이 원칙적으로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아직도 전통사회적 성격이 부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F-cycle반응도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체적 F-cycle 반응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시현하고 있는데, 성주군을 중심으로 근교지대에서 F-cycle의 적용도가 가장 높고 이어 중간지대, 원격지대로 감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 즉 거리조락현상을 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각 지역의 노동생산성의 거리조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경영주의 연령과 경영규모의 변화관계

경영주 연령과 경영규모와의 관계는 농가별로

차이가 있어 일반적 관계를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주 연령을 30세부터 10년 간격의 연령층으로 묶고 동일 연령층에 속하는 농가들의 경영규모를 평균하여 그 연령층 농가의 평균규모로 간주하고 양자간의 관계를 〈그림 1, 2, 3〉에 표시하였다. 이때 각 연령층의 경영규모는 해당 연령층의 중간연령 자리에 표시하였다.

(1) 자가소유 경지규모의 연령별 변화

자가소유 경지규모는 F-cycle을 이르는 기본 조건이다. 즉 자가의 경지규모가 크고 작은데따라 그후의 경지규모 확대여부와 정도 및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 연령에 따른 자가경지의 규모변화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① Cycle형

30대 이후 일정기간에 규모의 절정에 이른 후 60~70대에 크게 감소하는 유형으로서 다시 두 가지 型으로 세분된다.

i) 40대 絶頂型 : 경영규모가 40대에 최대가 되는 유형으로 고령군과 의성군이 여기에 속한다. 고령군에 비하여 답작지대인 의성군의 규모 변동폭이 매우 현저한 것이 특색으로서 그 만큼 규모의 연령 대응이 민감하다.

ii) 50대 절정형 : 전작지역인 영일군이 여기에 속한다.

② 감소지향형

30대에 자가경지규모가 최대이고 이후 계속 감소하는 유형으로 성주군이 여기에 속하고 봉화군이 여기에 준한다.

(2) 임차지규모의 연령별 변화

임차지의 규모변동 역시 두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① Cycle형

성주군, 의성군, 영일군이 여기에 속하는데 모두 40대 절정형이다. 또 의성군에 비하여 영일군의 규모변동폭이 매우 커서 규모의 연령대응이 민감한 것이 특색인데 전자보다 후자의 임대지 공급도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40대의 최대

賃借農의 地域性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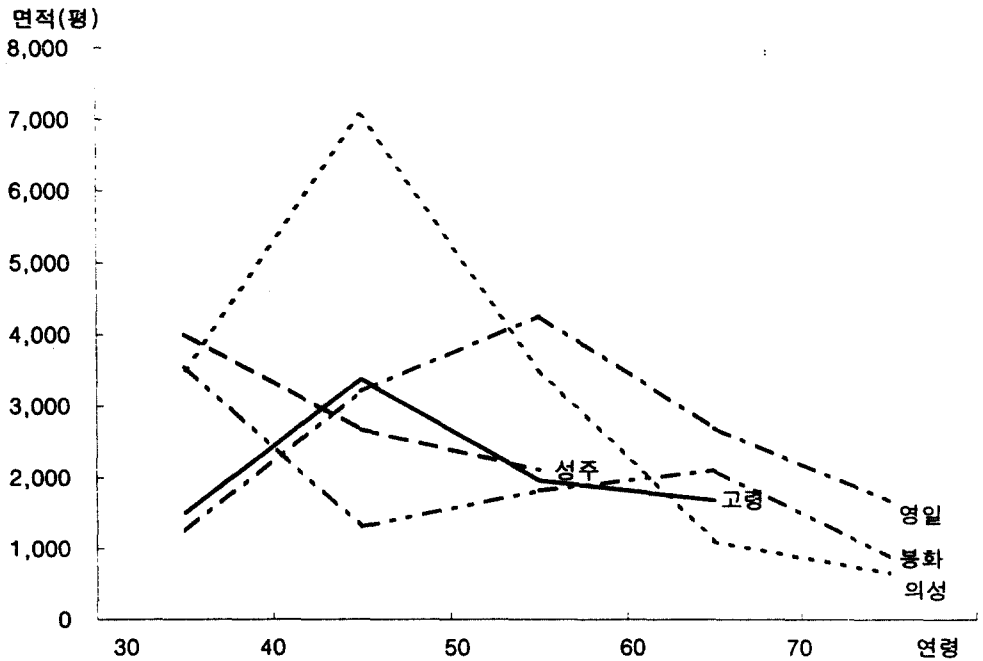


그림 1. 연령별 자가소유 경지면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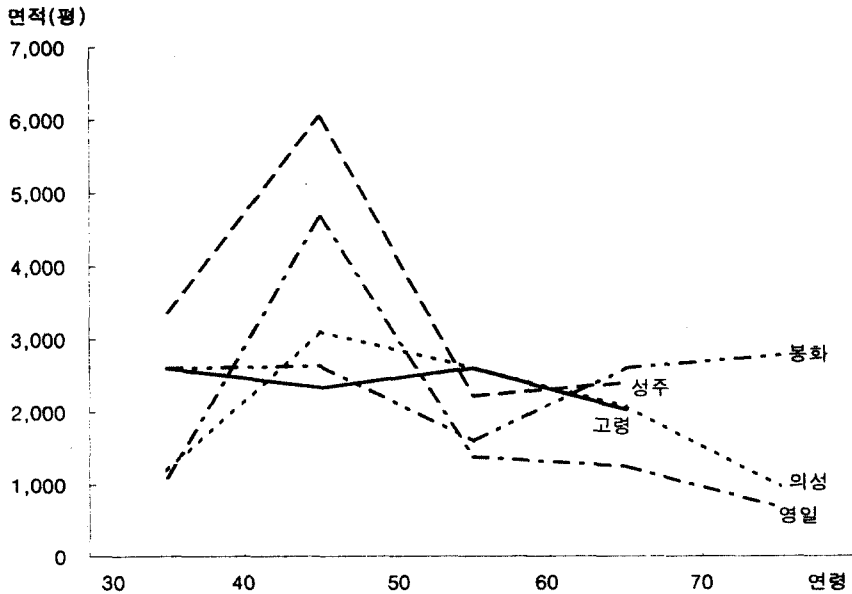


그림 2. 연령별 임차지 면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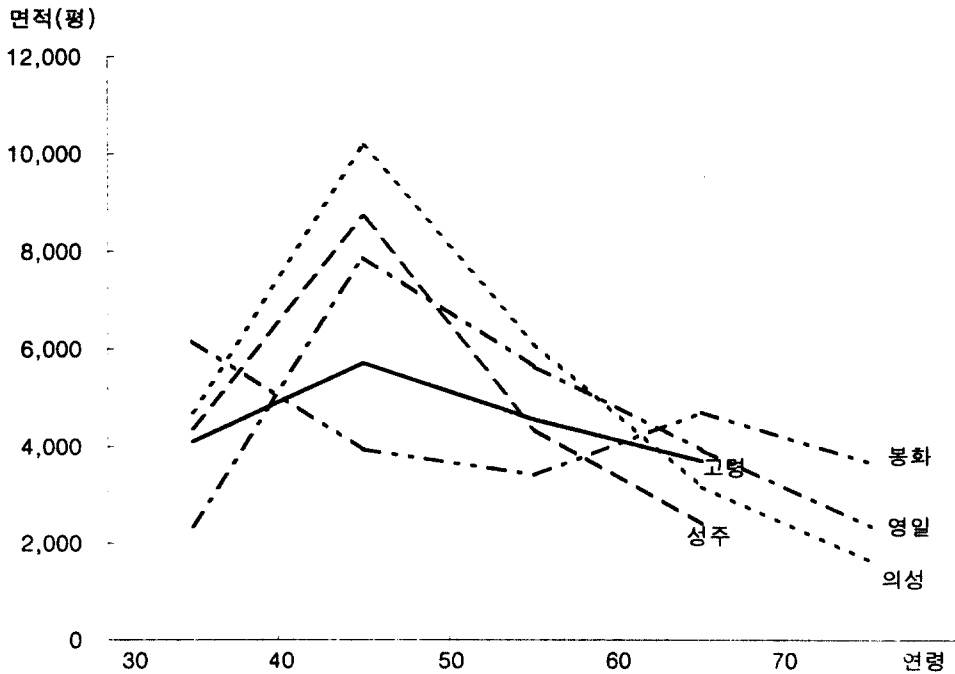


그림 3. 연령별 경영규모의 변화

임차지규모가 60세까지 그 수준을 유지한다는 김성호·정기환의 연구와는 달리 40대 이후 임차지 규모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② 일정수준 반복형

고령군과 봉화군은 cycle형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할 정도로 그 변화가 불규칙하나 임차지 규모의 변동폭은 2배 이내로서 임차지규모의 연령대응이 소극적인데 고령군의 경우 근소한 변동폭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봉화군은 50대에 감소한 후 60대에 약간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일 고령군의 미소한 변동폭과 봉화군의 50대 규모감소를 무시한다면 두 지역은 연령에 관계없이 임차규모가 거의 일정한 수준에서 변화가 반복되는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임차지 규모의 연령별 변동을 전술한 자가 소유 경지규모의 변동과 관련지워 보면 고령군의 경영규모 변동의 주요인은 임차지가 아니라 자가 경지이고 성주군은 전형적인 임차지향이어서 임차

지가 규모변동의 지배적 요인이 되고 있다.

또 한국농업의 F-cycle표준형(40대절정형)을 시현하는 의성군은 자가경지와 임차지가 다같이 규모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영일군은 40대까지 임차지 요인이 지배적 요인이거나 50대 이후는 자가경지가 보다 중요한 요인이되어 안정지향을 하고 있다. 또 봉화군은 산간지역의 특수한 사회적 요인을 반영하여 30대와 60대에는 자가적 요인이, 40대와 50대에는 임차적 요인이 규모변동을 주도하는 것 등 각 지역 성격에 따라 주도요인에 차이가 있다.

이상 농가규모 변동구조의 지역차는 “농가 경영 규모의 확대는 주로 농지의 임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주장과 “임차지 면적은 경영주 연령이 30대에 도달하면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가족원 규모가 가장 큰 44세에서 최대가 되며 60세까지 현상수준을 유지하다가 경영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60세 이후에 도달하면 임차지 면적도

따라서 감소한다.”라는 종래의 주장(정기환, 1993, 51~52)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3) 경영규모의 연령별 변화

〈그림 3〉의 경영규모 변화곡선은 전술한 자가경지와 임차지 규모변화가 결합된 것이다. 봉화군을 제외한 4개 지역이 모두 40대를 절정으로하는 전형적인 F-cycle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즉 전술한 가족수로 본 F-cycle이 부분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데 대하여 경영주 연령으로 본 F-cycle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답작지역인 의성군은 경영규모의 연령대응이 가장 민감하여 그 변동폭이 6배에 이르고 이어 성주군과 영일군이 중간정도의 변동폭을 시현하고 있는데 대하여 고령군과 봉화군은 반응이 소극적이다. 이와 같이 답작지역이 비답작지역보다 경영규모의 年齡 彈力性(age elasticity)이 높은 것은 답작지역이 비답작지역보다 영농의 기계화가 더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답작지역내에서는 경영주의 연령에 따라 기계화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또한 연령으로 본 F-cycle은 전통사회뿐만 아니라 산업화사회의 임차농업공간에서도 존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봉화군의 경우를, 청장년 중심의 선택적인 인구감소로 인하여 정상적인 F-cycle 형성조건을 결여한, 특수지역으로 간주할 경우 한국의 임차농업공간에 있어서 경영규모 변화에 대한 소농이론의 적용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술한 김성호·정기환의 연구와 같이, 40대에 최대에 달한 경영규모가 50대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50대부터 급격히 축소되는 것이 차이가 있다.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가족수로 본 F-cycle의 불명확성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Chayanov의 소농이론에서는 경영규모를 규정하는 변수로서의 가족수(가구원 수)와 경영주의 연령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일정한 시기까지는 경영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가족수도 많아지고 또 노동가능한 가족의 거의 전부가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가의 가계지출이 증가하는 한편에는 그 만큼 농업노동력의 투입도

증가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산업화된 농촌사회에서는 두 변수간의 同意關係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다. 선택적 이농으로 가족이 모두 농촌에 거주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모두가 영농에 종사하지도 않으며 전통사회처럼 생계비 지출도 가족수에 비례하지 않는다. 산업사회의 영농에 있어서 경영규모 확대는 가족수보다는 경영주의 능력, 즉 육체적 노동능력, 영농지식과 경험 및 기술, 정보의 양과 질, 자본, 경영의지나 개척정신등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경영주의 재능력조건을 최상으로 구비한 연령층이 바로 40대이다. 40대 절정 cycle은 이런 배경에서 성립된 것이며 산업사회에서도 F-cycle은 단절없이 존속하고 있다. 또 이런 점에서 농업의 자본주의화가 진척중인 한국의 (임차)농업공간에 있어서 F-cycle은 Chayanov식 小農經濟學논리, 즉 생계적 성격의 농가개념외에도 산업사회의 소농이론, 즉 경영체로서의 소농개념을 결들인 복합적 논리에 의하여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농경제학적 논리와 자본주의적 논리는 구조적으로 융합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소농의 자본주의화로 인하여 새로운 소농 경제학 논리의 개발이 시도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4. 農地의 賃借關係

1) 賃借人의 속성

(1) 임대인의 현거주지

〈표 12〉는 임대인의 현거주지를 임차농을 통해 조사한 것이다. 한 임차농은 평균 1.4인의 임대인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셈이나 임대지의 공급사정에 따라 근교지대의 임차농가당 평균 임대인수가 원거리 전작지대의 그것보다 많은 것이 특색인데, 임차농가당 임대인 수가 많을수록 임대차관계가 그 만큼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또 在村地主: 不在地主의 비율은 평균 56.3:43.7로써 재촌지주 중심의 임차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1977년의 張東燮의 조사결과인 31.5:68.5(倉持和雄, 1983, 117)이나 鄭起煥(1993, 74)이 조사한 1990년의 46.7:53.3에 비하여 재촌지주의 비율이 점점커지

표 12. 임대인의 현거주지

거주지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계 (평균)
		고령	성주	의성	영일	봉화	
재촌 지주	里內	50.0	75.0	44.5	30.0	26.1	44.5
	面內	15.0	·	3.7	5.0	21.8	9.1
	郡內	·	·	11.1	·	·	2.7
부재 지주	道內	·	·	3.7	25.0	13.0	8.2
	大邱市	35.0	20.0	14.8	20.0	13.0	20.0
	기타 시도	·	5.0	22.2	20.0	26.1	1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임대인수		20	20	27	20	23	110

는 추세를 시사하고 있는데 그 만큼 최근으로 올수록 재촌탈농이나 노령화에 따른 재촌지주의 증가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그외에도 지주의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里內임대인의 분포가 성주를 정점으로 거리조락하고 있는 것이 농외취업기회의 거리조락과 관련이 있고 고령군과 성주군간의 거리체중은 Sinclair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영일군과 봉화군이 평균구조와는 달리 부재지주중심의 임차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영일군이 유일하게 재촌 재주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부재지주 중심의 임차농업지역이 되고 있다. 이것은 이 지역이 中山間전작지대로서 이촌이 활발했던 지역일 뿐만 아니라 농외 취업기회가 적어 거의 전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결과 재촌지주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며 전국 산간마을의 공통적 특색이기도 하다(정명채 외, 1996d, 34). 봉화군 역시 이와 유사한 이유로 재촌지주의 비율이 낮으나 영일에 비하여 임업 등 농외취업기회가 있어 상대적으로 영일군보다는 그 비중이 높다.

아무튼 영일군과 봉화군의 두 전작지역이 부재지주 중심의 임차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1980년대 이후의 농산물 수입개방의 악영향이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여 경쟁력이 낮은 산간전작지역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산간지역 임대농지의 큰 부분은 이촌

자의 농지이고 그것도 경지조건이 유리한 것만 골라 선택적으로 임차되므로 나머지는 휴경이나 廢耕되는 경우가 많다(정명채 외, 1966d, 32~34).

한편 재촌지주중에서 압도적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은 里내거주 지주라는 사실에서 域內賃借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역내임차의 비중이 큰 것은 농민의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성주군의 경우 임대인의 75%가 역내에 거주하고 있고, 고령군도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점하여 근교농업지역의 역내임차도가 매우 높은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이 지역의 높은 임차료에 대한 노령 임대인의 합리적 반응결과이다. 역내 임차도가 근교지대에서 가장 높고 이어 거리조락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都農統合度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농업의 자본주의화와 전통 농촌의 변질도를 파악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2) 임대인의 연령 구성

임대인의 연령구성은 임대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표이다. <표 13>에서 전체적으로 임대인의 과반이 영농의 지속이 어려운 노령층이며, 특히 이것은 고령군과 성주군의 상업적 근교농업지대에서 그러하다. 또 중심도시와의 관계에서 본 노령층 임대인의 비율분포는 거리조락현상을 시현하여 공간질서의 존재를 명백히 들어내고 있다. 이에대하여 30~40대의 비교적 젊은 임대

표 13. 임대인의 연령구성

연령층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계 (평균)
	고령	성주	의성	봉화	
30대	.	.	7.7	4.5	3.2
40대	25.0	10.5	15.4	36.4	20.2
50대	15.0	31.6	30.8	18.2	22.3
60대	30.0	31.6	30.8	27.3	33.0
70대이상	30.0	26.3	15.3	13.6	2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영일군은 자료미비로 제외

표 14. 임대사유

임대사유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계 (평균)
	고령	성주	의성	봉화	
노령화 또는 노동력 부족	60.0	75.0	22.2	30.5	44.4
탈농	.	.	29.6	13.0	12.2
상속	5.0	.	3.7	8.7	4.4
이촌(이농)	30.0	5.0	33.4	30.5	25.6
외지인의 매입·임대	.	20.0	3.7	13.0	9.0
기타	5.0	.	7.4	4.3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적 젊은 임대인의 비율분포 역시 대체로 거리제 증경향을 인정할 수 있는데 생산력이 낮은 원거리 전작지역일수록 선택적 이촌에 따른 젊은 층 부재 지주가 많기 때문이다. 아무튼 임대인의 연령구성에 나타난 지역차는 각 지역의 특성에 대응한 임대인의 합리적 대응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2) 임대사유

〈표 14〉에서 임대인의 임대사유를 보면 전체적으로 노령화 또는 노동력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며 특히 노동투입이 많은 근교농업지역에서 탁월한 비중을 보이면서 거리조락경향을 취하고 있다. 역내 노동조건의 제약은 임

차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농업 전반에 걸친 전국적 현상이긴 하나 임차농과는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농촌노동력 부족의 일반적 요인으로 흔히 지적되고 있는 이농(이촌)의 비중(26%)보다 훨씬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탈농의 경우 근교지대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특색인데, 이것은 이 지역의 높은 농업수익성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미곡가격 형성으로 수익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답작지역(의성군)은 탈농이 30%에 이르러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실에서 탈농의 지역차 요인은 농업의 수익성과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노령화 및 노동력부족과 탈농은 일반적으로 재촌지주의 임대사유에 해당되고 상속, 이농, 외지인의 매입 임대는 부재지주의 임대사유에 속

한다. 따라서 전자를 域內人의 임대사유, 후자를 域外人의 임대사유로 볼 경우, 그 비율은 전체적으로 56.6 : 43.4로 역내사정에 의한 임대가 약간 우세하나 봉화군은 이농을 중심으로 역외사정임대가 더 우세하다.

노령화와 노동력부족 다음으로 큰 임대사유가 되고 있는 이농은, 성주군을 제외하면, 대체로 30% 수준으로 별 차이가 없으며 성주군의 이농이 적은 것은 참외나 수박 등의 고소득 상품작물 생산에의한 높은 수익성 때문이다. 상속의 경우 산간 지역인 봉화군의 비중이 높은 것은 토지자산의 상승기대심리에 의한 것이기라기보다는 수익성이 적은 농지의 매매부진 때문이다. 또 외지인의 매입·임대는 성주군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어 봉화군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 각기 근교지역과 보양지로서의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외지인(특히 대구) 투기와 관련이 있다. 다만 이러한 외지인의 농지소유와 임대가 지역농업의 외지종속을 초래하지는 않고 있다.

그외에도 근교지대는 임대사유구성이 비교적 단순한데 대하여 일반농업지역인 의성군과 봉화군은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조적인데 이것은 자본주의적 농업과 전통농업간의 구조적 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3) 賃貸借人의 인적관계

임대차관계는 임대차인간의 인적관계를 통해서도 파악될 수 있다. <표 15>에서 과거 이웃이나 친지관계가 임대차인간의 인적관계에서 탁월한 비

중을 점하고 이어 혈연관계가 중요하다. 장동섭의 연구에 의하면 1977년의 경우, 친척: 47.9%, 지인: 27.7%, 기타: 24.4%의 구조(倉持和雄, 1983, p.117)를 시험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것과 대비하면 친척관계 비중의 대폭감소와 지인관계 비중의 대폭증가 현상이 특색이다. 즉 임대차관계가 혈연관계중심에서 공간관계중심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관계는 임대인이나 임대지에 관한 정보가 양적 질적으로 풍부한 기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보다 임차 의사 결정에 신뢰도가 높은 관계일 뿐만 아니라 接觸의 利益을 통하여 감정적 유대가 확고한 관계이므로 임대차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두 가지 형태중에서 혈연관계보다는 공간관계가 주류를 이루는 것은 임대차관계가 近隣效果(neighborhood effect)에 의하여 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자본주의적 임대차관계를 함축하는 임대차인간의 무연고성은 전례로서 10%에도 미급하여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지역적으로 외지인의 매입과 임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성주군과 봉화군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 두 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지역에서 임대인의 대부분이 영세지주일뿐만 아니라 투기적 목적이 강하므로 자본주의적 임대차관계는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상에서 인간관계로 본 본연구지역의 임차농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주도된 社會的 賃借農의 성격이 강하다. 또 이러한 사회적 임차농의 성립과 발전의 기저에는 근린효과라는 공간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상대적

표 15. 임대차인의 인적관계

관계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계 (평균)
	고령	성주	의성	영일	봉화	
친척	25.0	10.0	44.4	40.0	8.7	26.4
이웃·친지	70.0	65.0	55.6	55.0	74.0	63.6
문중	4.3	0.9
관계없음	5.0	25.0	.	5.0	13.0	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6. 농지임차의 경제적, 비경제적 이유

이유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계 (평균)
	고령	성주	의성	영일	봉화	
농지매입자금부족	80.0	84.6	62.4	55.6	50.0	64.0
임차가 더 경제적	10.0	7.7	25.0	33.3	38.9	25.4
비경제적 이유	10.0	7.7	12.6	11.1	11.1	1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의미에서 지역을 비교하면 근교지역과 봉화군이 공간적 요인이, 의성과 영일의 중간지대가 혈연적 요인이 중요하다.

한편 사회적 임차농의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면서도 봉건적 소작에서 볼 수 있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경영간섭이나 지배·종속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임차지의 영농비는 전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 등 자유재배자(free grower)로서의 임차인의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4) 賃借農의 농지임차 이유

(1) 임차의 경제적, 비경제적 이유

농지임차는 경제행위이므로 거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나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표 16>에서와 같이 압도적 다수가 소득증대나 식량증산등의 경제적 이유에서 농지를 임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농지매입을 원하나 매입자금이 없거나 부족해서 부득이 임차하게 되었다는 반응이 전체의 64%를 점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한국의 보수적 농촌사회에서는 경지의 소유규모가 사실상의 사회적 지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농민들은 경제적 이유외에 신분상승을 위하여 소유경지의 규모확대를 간절히 원한다. 가령 답작지대의 경우 최소 3,000평 이상을 소유해야 농업인으로 대접받고 지역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수 농민이 2~3ha까지는 가능하다면 추가매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 그 예이다(김정부 외, 1995, 118).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농지매입을 원하면서도 자금문제로 부득이 임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代案賃借의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이유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이 대안임차의 정도는 근교지대에서 압도적으로 높고 여기에서 거리가 증대됨에 따라 조락하고 있어 공간체계적 규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각 지역의 농업수익성과 농지가격의 차이가 이러한 공간질서를 규정하는 주요인이다.

한편 농지매입보다 임차의 경우가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진 바 있으나(이정환, 1994, 67~68) 본 연구에서 이러한 이유로 농지임차를 한 경우가 전체적으로 25%를 점한다. 이것을 순수 경제적, 경영적 논리를 근거로한 選好賃借로서 근교지역에서 거리가 증대함에 따라 체증하는 경향이 인정된다. 이러한 거리체증의 정도는 농지의 자산적 가치가 적을수록, 또 임차료가 저렴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어 역시 수익성과 관련이 있다.

끝으로 비경제적 이유는 전체의 약 10%를 점하고 지역간의 큰 차이도 없으나 농지임차가 순전히 경제적 이유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는게 그 의의가 있다. 비경제적 이유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친척이나 친지의 간곡한 부탁에 의한 임차, 즉 請託賃借를 들고 있어 임차관계에 있어서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2) 임차의 경영적 이유

농지임차에서 압도적 비중을 점하는 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성립된 임차농은 그 실천적 근거로서의 경영적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표 17>에서 최대의 경영적 이유는 농가 잉여노동력의 활용이다. 일반적으로 잉여노동력을 보유한 농가는 영세·소

표 17. 농지임차의 경영적 이유

이유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계 (평균)
	고령	성주	의성	영일	봉화	
잉여노동력 활용	30.0	30.0	41.7	21.2	70.6	36.6
농기계의 활용도 제고	20.0	20.0	41.7	15.2	11.8	19.5
적정경영규모 확보	20.0	30.0	.	39.4	.	22.0
농지교합과 연작피해방지	30.0	20.0	.	21.2	.	14.6
기타	.	.	16.6	3.0	17.6	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영세·소농의 비중이 탁월한 본 연구지역의 경우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노동지향적 요인의 비중은 특히 봉화군에서 월등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지역이 기계화가 가장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노동지향적 요인 다음으로 중요한 경영적 이유는 농기계의 활용도 제고로서 주로 중농 이상에 해당된다. 지역적으로는 기계화가 가장 진척된 의성·담양지역의 비중이 특히 크다.

이상과 같이 농가가 보유한 잉여노동력이나 농기계의 활용도 제고, 즉 생산수단의 활용도 제고가 경영적 이유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사실은 본 연구지역의 임차농업이 아직도 상황 대응적, 수동적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하여 적정 경영규모 확보를 위한 임차는, 비록 앞의 생산수단 활용을 위한 임차와 부분적으로 중복되기는 하나,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적극적, 능동적 임차 단계라 할 수 있는데, 근교지역과, 전작 농업의 상업적 임차화가 진척중인, 영일군에 한정되어 있다. 또 연작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한 농지 교합의 필요성 역시 지력소모가 심한 상품작물 생산에 주력하는 이들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특수한 경영적 이유이다.

5) 임대차관계의 변화

농지임차 희망농가의 증감추세는 임대차관계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표 18>에 나타난 임차농의 반응을 보면 반응자의 시각에 따라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임차희망농가의 증가추세보다 감소추세가 전작지역인 영일군과 봉화군에서 두드러지며 이어 의성이 그러하다. 이에 대하여 근교농업지역은 오히려 증가추세가 탁월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어 지역차가 뚜렷하다. 일반농업지역의 임차희망농가의 감소추세는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가격 불안정으로 수익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참외, 수박 등 고소득 新鮮농산물을 생산하는 근교농업지역은 상대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의 영향을 적게 받아 임차농의 안정적 증가가 가능하다.

한편 농지 임대희망자와 임차희망자의 관계를 보면 <표 19>와 같이 역시 같은 지역내에서도 반응자간에 상반되는 견해를 시현하고 있어 혼란스러우나 본 연구에서는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경우를 그 지역의 대표적 성향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표 19>를 보면 임대희망자나 임차희망자가 다같이 적어 임차농이 침체된 것으로 반응한 경우가 가장 우세한데, 지역적으로는 영일군과 봉화군의 전작지역이 그 대표지역이다. 이들 두 임차침체지역의 가장 큰 침체이유로 영일군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의한 수익성 불확실, 봉화군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영농자체를 기피하려는 심리를 들고 있다. 또 임대희망자가 임차희망자를 초과하여 임대지 공급과잉의 경우는 두번째로 큰 비중을 점하는데, 이 경우는 수요자 중심의 임대차시장이 형성되므로 임차희망자가 임대지중에서 유리한 조건을 구비한 농지를 선택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選擇的 賃借地域이나 한편으로는 임대지가 초과

표 18. 농지임차희망 농가수의 변동추세

변동추세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계 (평균)
	고령	성주	의성	영일	봉화	
증가하고 있다	50.0	61.5	29.4	26.7	.	29.9
감소하고 있다	20.0	15.4	47.1	73.7	66.7	49.3
변동없다	30.0	23.1	23.5	.	33.3	2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9. 농지 임대차 희망농가수 비교

이유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계 (평균)
	고령	성주	의성	영일	봉화	
임대차희망자, 다같이 많다	.	33.3	11.8	5.9	.	9.5
임대차희망자가 더 많다	40.0	16.7	35.3	5.9	38.9	27.0
임차희망자가 더 많다	40.0	25.0	17.6	35.3	5.6	23.0
임대차희망자, 다같이 적다	20.0	25.0	35.3	52.9	55.5	4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급된다는 자체가 지역 임차농발전에 장애요인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고령군과 의성군이 대표지역인데 고령군의 경우 노동력부족과 농산물 가격불안정, 의성군은 노동력 및 장비부족이 임차농의 증가를 방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임대차희망자가 임대차희망자수를 능가하여 공급자중심의 임대차시장이 형성되는 경우는 임대차희망농가의 임대차확보를 둘러싸고 경쟁이 심화되는 競争的 賃借地域이나 반면 수익성은 높다. 고령군이 대표지역으로서 임대지 부족을 임차농 확대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다. 고령군의 경우 상호 모순되는 선택적 임차와 경쟁적 임차가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임차농 경영주의 속성의 차이에 따른 시각차로 보이나 <표 18>에서 고령군의 임차농 증가추세가 우세한 점과 또 임차농 확대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임대지부족을 들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로는 선택적 임차지역보다는 경쟁적 임차지역으로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임대차 희망자가 다같이 많아 임차농이

활성화된 活性的 賃借地域은 성주군이 대표적인데, 이 지역의 높은 수익성이 임대차관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5. 賃借地의 선정

1) 임차지의 입지조건

임차농의 임차지 선정시에 고려할만한 예상 입지조건 11개항을 설문지에 미리 제시하고 경영주가 자신의 임차지 선정시에 가장 중요시하였던 3가지 조건을 골라 그 순위를 기록케한후 1위에 3점을, 2위에 2점을, 3위에 1점을 가중하여 지역별로 총점을 산출하고 이 총점을 100%로 볼 경우의 각 입지조건들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 표 20인데, ① 위치와 거리, ② 농로사정, ③ 관개 및 배수, ④ 지력, ⑤ 경영규모, ⑥ 作目的 6개 입지조건에 반응이 집중되었다. 이들 제조건은 경지입지의 일반적 조건과 차이가 없어 임차지 선정에 있어서 특수한 입지조건은 발견할 수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논과 밭의 입지조건의 비중구

표 20. 입차지의 입지조건

입지조건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계 (평균)	
		고령	성주	의성	영일	봉화		
		논	논	논	밭	밭	논	밭
접근성	위치와 거리	13.0	18.1	23.6	30.7	44.0	19.1	36.4
	농로	11.1	19.4	11.2	21.2	18.8	14.0	20.1
생산기반	관개·배수	27.7	22.2	44.9	21.2	1.3	33.0	12.8
	지력	16.7	22.2	7.9	17.3	20.0	14.9	18.4
기타	경영규모	24.0	5.6	9.0	5.8	13.3	11.6	8.9
	작목	5.6	11.1	3.4	.	1.3	6.5	0.6
	기타	1.9	1.4	.	3.8	1.3	0.9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조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논외의 경우 농지의 생산기반 조건이 48%로 가장 중요시되고 이어 접근성(33%)이 중요한데 대하여, 밭의 경우 접근성(57%)이 가장 중요하고 이어 생산기반조건(31%)이 중시되고 있다. 논과 밭 다같이 농지의 접근성과 기반조건이 중요하나, 경제적 가치나 생산력 및 교통망 발달의 차이가 논과 밭의 입지조건 순위 구성에 차이를 초래하였다. 접근성이나 생산기반조건에의 집중도는 밭(87.7%)이 논(80.3%)보다 약간 더 커서 입지조건 구성이 보다 단순하다.

지역별로 보면 접근성의 중요도는 대체로 교통 발달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산간지대로서 교통사정이 열악하고 경지 분산도가 큰 봉화군이 접근성을 가장 중시하고 이어 중산간지대인 영일군이 그러한데,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고령군은 그 비중이 가장 낮다. 또 접근성중에서도 농로조건보다는 입차지의 위치와 거리조건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은 농가와 농지간의 교통이 자동차보다는 보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농지의 생산기반조건을 가장 중요시하는 지역은 답작지역인 의성군으로서 특히 관개·배수 조건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근교농

업을 영위하는 성주군의 경우 관개·배수조건과 지력조건이 주요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봉화군의 전작지역에서는 지력조건이 절대적이다.

경영규모의 중요성을 특별히 인정한 지역은 고령군으로서 대도시 근교지역에서의 적정규모 확보의 곤란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봉화군 역시 고령군 다음으로 경영규모를 중시하는 것은 산간지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작목의 입지조건으로서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은 입차농업과 관계없이 지역별로 (특화)작목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성주의 경우 작목선택의 중요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참외 생산에 적합한 논이 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2) 입차지의 거리

입차농의 입차지 선정에 있어서 농가와 입차지간의 거리는 전술한 것처럼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자가소유 경지에 대한 입차지의 상대적 거리가 중요하다. <표 21>은 농가와 자가소유 경지간의 평균거리에 비하여 농가와 입차지간의 거리를 입차농이 상대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입차농은 농가와 자가소유경

賃借農의 地域性에 관한 연구

지간의 평균거리와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임차지를 선호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자가경지 부근의 임차지가 노동의 효율적 배분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보면 임차지 선정의 경우는 자가경지까지의 평균거리보다 더 근거리의 임차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실하다. 임차지 선정에 있어서의 근거리 선호경향은 임차지의 상당부분이 상업적 목적에 이용되므로 거리마찰을 최소화하여 노동생산력의 극대화를 노릴 뿐만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임대지 공급과잉지역이 많아 근거리 임차지의 선정계약이 적기 때문이다.

지역별 거리반응을 보면 유사한 근교농업지역이면서도 고령군이 자가경지부근에 임차지를 집중시키면서 遠近反應이 균형을 취하고 있는 보수적, 소극적 입지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성주군은 거리 탄력성이 상당히 커서 원근반응이 양극화된 것이 대조적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지 수급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나 그외에도 고령군이 노령의 토착 임차농(평균 53세, 현지거주기간 평균 48년)이 많은데 대하여 성주군은 상대적으로 젊은 농민층(평균 46세, 현지거주기간 평균 17년)이 많아 자가 교통수단에 의한 기동성이 커서 거리극복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주군의 경우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한 임차지의 비중이 40%에 이른다.

또 의성군의 경우 자가경지와 비슷한 거리범위에 있는 임차지를 선정한 농가가 반이상으로 대상지역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할 뿐만 아니라 위치 선

정에 있어서 거리 탄력성이 매우 적은 것이 특색이다. 미작의 기계화 영농으로 자본생산성을 중요시하게 되고 이것은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자가 경지주변의 임차지를 선호케 함으로써 거리반응을 민감하게 만들었다.

끝으로 전작지대의 경우 영일군이 봉화군에비하여 상대적으로 원거리지향인데 대하여 봉화군은 근거리지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대조적인데, 이것은 두 지역간의 교통사정과 임대지 공급의 차이에 기인한다.

6. 賃借農의 地域性

본 연구의 5개 대상지역은 여러 측면에서 절대적 상대적으로 분석 평가되는 과정에서 그 지역성이 구명되었다. 물론 이들 지역성은 비교 대상과 분석의 수준에 따라 가변적이긴 하나 본연구의 5개 지역 상호간의 대비에 의하여 상대적인 성격규정을 시도하면 <표 22>와 같이 요약된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지역차 형성조건으로는 ① 농촌과 도시·산업복합체간의 통합도, ② 지역의 (천연)자원적 기반이나 관광, 서비스, 제조업 등 지역 경제기반의 성격, ③ 지역의 사회적 인구적 성격, ④ 지역 정치조직의 성격과 자치능력의 4가지가 있다(Bowler, et. al., 1992, 3). 본연구에서 ④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므로 나머지 3가지 조건에 의하여 지역성이 규정되는데 그중 ①은 상업화도에 의하여, ②는 주로 자연환경을 반영하는 경영형태와 경제기반으로서의 경영규모에 의해, ③

표 21. 농가와 임차지 간의 (상대적)거리

거리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계 (평균)
	고령	성주	의성	영일	봉화	
상당히 가깝다.	11.1	28.7	·	·	40.0	14.3
약간 가깝다.	11.1	14.2	21.4	44.4	13.3	23.9
비슷하다.	55.6	14.2	57.2	16.7	46.7	38.1
약간 멀다.	11.1	·	21.4	22.2	·	17.5
상당히 멀다.	11.1	42.9	·	16.7	·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2. 임차농의 지역성(요약)

지역성의 지표	근교지대		중간지대		원격지대
	고령	성주	의성	영일	봉화
경영규모	중간	크다.	크다.	중간	영세
경영규모구조	영세·소·중농의 조화	중·대농의 비중이 크다	중·대농의 비중이 크다	소·농중심의 복합형	영세농중심
소유지와 임차지의 구조	主自補賃	主賃補自	主自補賃	主自補賃	主自補賃/主賃補自
소유지와 임차지 변동	自退賃進	自·借作前進	自·借作前進	自退賃退	自進賃退
순임차농가율	낮다	매우 높다	약간 낮다	낮다	약간 높다
순임차농의 경영규모	크다	크다	영세	복합적	영세
임차지의 규모	영세	크다	약간 크다	매우 영세	영세
2ha 이상 농가	.	상당히 많다	약간	약간	.
임차의존도 (평균차지율)	높다	상당히 높다	낮다	낮다	중간
차지율 200% 이상 농가율	중간	약간 높다	약간 높다	.	상당히 높다
차지율과 경영 규모의 관계	고령형	성주형	복합형 (중농중심)	복합형 (소농중심)	불규칙
가족수로 본 F-cycle 적합성	비교적 높다	상당히 높다	낮다	중간	매우 낮다
경영주 연령으로 본 F-cycle (자가소유경지)	40대 절정형	감소지향	40대 절정형	50대 절정형	60대 절정형
경영주 연령으로 본 F-cycle (임차지)	반복형	cycle형	cycle형	cycle형	반복형
경영주 연령으로 본 F-cycle (경영규모)	F-cycle	F-cycle	F-cycle	F-cycle	불규칙
임대인의 현거주지	재촌지주중심	재촌지주중심	재촌지주중심	부재지주중심	부재지주중심
60대이상 임대인 비율	매우 높다	높다	중간	.	낮다
주요임대사유	노령화	노령화	이촌	.	노령화 및 이촌
농지임차의 경제적 이유	대안임차	대안임차	대안임차	선호임차	선호임차
농지임차의 경영적 이유	복합적	복합적	노동력·농기계	적정규모 확보	노동력 활용
임차희망농가수	증가	증가	감소	감소	감소
임차차 관계	경쟁적 임차	활성적 임차	선택적 임차	임차침체	임차침체
주입지조건	생산기반	생산기반	생산기반	접근성	접근성
거리관계의 공간탄력성	크다	상당히 크다	작다	약간 작다	작다

賃借農의 地域性에 관한 연구

은 사회적 성격을 반영하는 임대차관계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는데 이들 4지표를 기준으로 임차농의 지역성을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령군 : 확대지향하는 중규모의 상업적 근교원에임차지역

② 성주군 : 확대지향하는 대규모의 고도로 상업적인 근교원에임차지역

③ 의성군 : 축소지향하는 대규모의 상업적 답작임차지역

④ 영일군 : 축소지향하는 중규모의 상업화가 진척중인 전작임차지역

⑤ 봉화군 : 축소지향하고 상업화가 뒤늦은 영세 산간전작임차지역

이상과 같은 임차농의 지역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 아직도 한국의 임차농업공간은 비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공간이 완전히 해체되고 자본주의 생산양식공간화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영농주체가 자본가가 아니고 소농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소농은 비영리적 자급농으로서의 소농이 아니라 소상품생산을 지향하는 소농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임차농업공간은 농촌의 전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농의 공간대응의 결과이다. 즉 소농의 상업화과정에서 특정 농업공간체계내에 속한 각 지역의 위치성에 따라 상업화정도에 차이가 일어나고 이것은 또한 지역의 고유한 국지성과 결합하여 임차농의 지역성을 창출하게 된 것이다.

7. 결 언

본 연구는, 특정 농업공간체계내에서도 지역의 절대적 상대적 성격에 따라, 임차농의 성격은 현저한 차이성을 시현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가 국토농업공간의 일부(경상북도)를 그것 조차도 몇 개의 사레마을의 비교분석에 국한된 극히 제한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임차농의 성격에 현저한 지역차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임차농의 이해는 지리학적 접근없이 불가능함을 입증하고 있다.

임차농의 성격 형성에는 역사적, 문화적, 정치

적, 사회·경제적 재요인이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이들 재요인은 반드시 특정시점의 특정 지역을 통해서 顯在化된다는 점에서 時空間性의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들어난 경제적, 사회적 반응, 가령 경영의 상업화수준, F-cycle, 경영규모와 그 구성, 中農化지향, 노령화, 임대차관계, 입지조건 등에 관한 임차농의 제반응이 경제공간이나 사회공간의 성격, 즉 공간성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임차지는 대농에 집중된다.", "수도작지역의 借地率은 전작지대의 그것보다 높다.", "자가소유지의 규모가 영세할수록 임차지의 규모도 영세하다.", "F-cycle 논의"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국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논리는, 적어도 본 연구지역의 경우, 현실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한편 공간성(spatiality)은 공간질서(spatial order)와 국지성(locality)이 결합된 것으로서 전자는 특정 空間體係내의 각 장소간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후자는 특정 장소가 지니는 고유하고 특징적인 성격을 각기 의미한다. 본 연구에 있어서의 공간질서는 주로 임차농의 距離反應의 형태로 표출되는데 가령 상업화의 수준, 경영규모, 가족수로 본 F-cycle의 적용도, 역내임차도, 임대인의 연령 등의 분포에서 발견되는 距離凋落 경향이나 임대차관계에서의 近隣效果 등이 그 예이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지역에서의 국지성은 주로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인구구성의 특성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제6장에서 요약된 바 있는 각 지역의 임차농 성격은 바로 이 공간질서와 국지성이 결합된 산물이다.

끝으로 이들 상이한 임차지역은 경제발전과정이라는 시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봉건적 小作농업에서 자본주의적 借地農業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농업의 상업화 정도(농촌과 중심도시의 통합도), 즉 자본주의화의 특정 단계가 특정 공간성과 결합되어 이룩된 지역분화의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임차농의 성격구명은, 소농경제논리와 자본주의경제 논리가 공간성을 매개로 집합형성된, 새로운 논리에 의하여 시도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註

- 1) 현재까지 임차농업을 공간적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馬鐘鉉의 「韓國貨貸借農地의 空間分布와 貨借農家行態」(1996)과 徐贊基의 「貨借農家의 空間構造」(1997)의 두 건뿐이다.
- 2) 원칙적으로 하나의 里洞을 조사대상 마을로 택하였으나 임차농가수가 적거나 자료수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 두 개마을에 걸친 경우도 있다.
- 3) 본 연구의 표본농가의 수가 조사마을별로 최소 10개에서 최대 19개, 합계 77개 농가이다. 조사대상 농가의 경영주가 부재중이거나 비협조로 마을별 조사농가율이 모집단에 비례하지 않고 또 총표본 농가수도 보기에 따라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한 농가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심층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표본의 수나 비율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본문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조사결과에 나타난 지역간의 변화나 차이가 특정의 공간질서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 사실이 자료의 정확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자료는 지역의 비교분석에는 무리가 없다.
- 4) 설문조사 결과중에서 임차료 문제를 비롯하여 지역차가 뚜렷하지 않는 사항은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文 獻

강용창, 1991, 농지임대차를 통한 경영규모의 확대 가능성 분석, **농촌경제**, 14(3), 61~73.
 강용창·박현태, 1995, 농지 임대차 중대에 관한 거리비용적 접근, **농촌경제**, 18(1), 71~77.
 金聖昊·金沅根·全敬植·許英九·金泰坤, 1984, **農地制度 및 農地保全에 關한 調查研究**, 한국농촌경제연구원.
 金聖昊·金正夫·金正鎬, 1986, **農地貨貸借定立을 위한 調查研究**,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35.
 김성호·정기환·박문호, 1993,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영체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98.
 金沅根, 1985, 우리나라 **農地貨貸借制度 改善에 關한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부·김기성·백선기·김태곤·김홍상·이태호, 1995, **농지구묘화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326.
 金正鎬, 1987, **農地貨貸借論爭: 그 實態와 問題點**, **農村經濟**, 10(4), 109~123.
 金正鎬, 1992, 최근의 **農地流動化**의 동향과 성격, **농촌경제**, 15(1), 21~41.
 김정호, 1993, **농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78.
 김정호·정기환·박문호, 1993,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영체 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98.
 金忠實, 1989, **慶北地域 農業事例**,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74.
 농수산부, 1990, **농업총조사**.
 徐贊基, 1997, **貨借農家의 空間構造**, **대한지리학회지**, 32(1), 47~68.
 吳浩成, 1981, **經濟開發과 農地制度**,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5.
 馬鐘鉉, 1996, **韓國貨貸借農地의 空間分布와 貨借農家行態**,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李貞煥, 金殷淳, 1984, **農地 및 勞動의 流動性과 農業構造政策**,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86.
 이정환, 1994, 농지문제에 대한 인식의 일곱가지 쟁점, **농촌경제**, 17(3), 57~69.
 정기환, 1993, **농가의 성격변천에 관한 연구: 산업화에 의한 가족농의 구조적 변화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96.
 정명채·오내원·최경환·박대식·이상문, 1996a, **근교마을의 사회경제변화: 대전시 기성동 중촌마을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15-17.
 정명채·오내원·최경환·박대식·이상문, 1996b, **평야마을의 사회경제변화: 논산군 채운면 야화 2리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15-18.
 정명채·오내원·최경환·박대식·이상문, 1996c, **중간마을의 사회경제변화: 부여군 초촌면 송국 2리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15-19.
 정명채·오내원·최경환·박대식·이상문, 1996d, **산간마을의 사회경제변화: 금산군 남이면 대양 2리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15-20.

賃借農의 地域性에 관한 연구

- 崔洋夫·吳乃元, 1987, 農家經濟의 動態的變化 分析: 農地所有의 變化를 중심으로,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M15-5.
- 倉持和雄, 1983, 農地改革 이후의 韓國의 農地賃借問題, 農村經濟, 6(1), 109-122.
- 今村奈良臣, 1976, 農地賃借의 構造變化, 農業經濟研究, 48(3), 101~110.
- 車洪均, 1987, 韓國水稻單作地帶における 農地賃借의 現況 : 慶南金海郡駕洛面의 事例研究, 農業經濟研究, 25(1), 9~17.
- Bowler, I.R., Bryant, C.R., and Nellis, M.D. (eds.), 1992, *Contemporary Rural Systems in Transition*, C.A.B. International, Wallingford, U.K.
- Curry-Roper, J.M. and Bowels, J., 1991, Local factors in changing land-tenure patterns, *Geographical Review*, 81, 443~456.
- Harrison, M., 1979, Chayanov and Marxist, *Journal of Peasant Studies*, 7(1), 86~100.
- Perter, R., 1983, Sharecropping : toward a Marxist view, *Journal of Peasant Studies*, 10(2,3), 42~70.
- Shanin, T., (ed.), 1973, *Peasant and Peasant Society*, Penguin Books Ltd., Harmondworth, U.K.

A Study on the Regionality of Land-Lease Farming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se Study Areas

Chan-Ki Suh*

Summary

This Study puts the purpose to explicate the regionalities of land-lease farming by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ive case study areas in Kungpook Province as the agricultural space system of Teagu metropolitan city.

For the regional comparative analysis the province was divided into the three zones with the distance from the central city(Teagu): urban fringes, intermediate and remote zone, and then subdivided into the five regions by farming systems : horticulture, rice-farming, and dry-field farming.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77 land-leasing farmers by questionnaire and interview with farm managers in 5 sample villages representing the regionalities of the above five regions respectively.

In spite of relatively restricted scope of the research areas, the analytical results appear remarkabl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land-lease farming within a single agricultural space system.

In the final analysis the regionalities of the five land-lease farming regions could be described respectively as follows.

① Koryong-Gun in the inner urban fringe zone :

The developing land-lease farming region

of commercialized suburban horticulture with medium scale.

② Songju-Gun in the outer urban fringe zone :

The developing land-lease farming region of highly commercialized horticulture with large scale.

③ Uisong-Gun in the intermediate zone :

The stagnated land-lease farming region of commercialized rice-farming with large scale.

④ Yongil-Gun in the intermediate zone :

The stagnated land-lease farming region of commercializing dry-field farming with medium scale.

⑤ Ponghwa-Gun in the remote zone :

The stagnated and delayed region in commercializing of intermountain dry-field land-lease farming with small scale.

These varied regionalities resulted from the diverse spatiality as a complex of spatial orders and localities. The spatial orders in this study are frequently recognizable as a form of distance-decay, and the locality of a region is determined mostly by the its peculiarity of physical and population conditions.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賃借農의 地域性에 관한 연구

regionalities the degree of commercialization of a region is a most comprehensive and useful frame of reference because it reflects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capitalist land-lease farming.

Finally these apparent regional differentiations of land-lease farming within a agricultural space system raise the problem of impracticality of the existing uniform logic on the land-lease farming such as "large scale farms share larger part of

leased farmland." This problem suggests the urgent need of reappraisal of many aspatial logics and theories on the land-lease farming.

Key Words : land-lease farming, subsistence land-lease farming(poverty land-lease farming), commercial land-lease farming, F-cycle, distance-decay, neighborhood effect.